



TOP NEWS · 이달의 헤드라인

MUSIC INDUSTRY — 2026 늦여름 결산

화려함의 시대, 다시 주목받는 "보이지 않는 저음"의 힘

8월 가요계는 스트레이 키즈의 미니 10집, KATSEYE, 엔하이픈 등 글로벌 라인업의 컴백이 이어지며 뜨거웠다. 눈길을 끄는 흐름은 '사운드의 두께'다. 리스너의 귀가 성숙해지며, 곡을 아래에서 떠받치는 **베이스 라인**의 완성도가 명곡과 평범한 곡을 가르는 기준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베이스는 무대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지만, 없으면 곡 전체가 무너진다. 멜로디가 '무엇을'이라면, 베이스는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결정한다. 좋은 베이스는 들리지 않고 **느껴진다**.

학생 관점 — 화려한 솔로가 박수를 받지만, 밴드를 지탱하는 건 저음이다. 눈에 띄지 않아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 — 이번 달, 그 '보이지 않는 뿌리'의 가치를 배우자.

BRIEFING · 이달의 소식

NEWS 01 · 컴백

8월, 글로벌 라인업의 격돌

스트레이 키즈, KATSEYE, 엔하이픈 등 해외 시장을 겨냥한 컴백이 몰렸다. 글로벌 사운드일수록 탄탄한 리듬 섹션과 베이스 그루브가 기본기다.

NEWS 02 · 트렌드

'밴드 사운드' 리바이벌 지속

실연 기반 편곡이 늘며 베이스·드럼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프로그래밍된 저음과 실제 연주의 그루브 차이를 귀로 구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NEWS 03 · 입시

수시 실기 D-30, 마무리 국면

9월 수시 실기가 코앞. 베이스 지원자는 지정곡 루트·리듬 안정성을 최종 점검하고, 자유곡은 메트로놈 녹음으로 타임을 다잡아야 한다.

NEWS 04 · 테크

DI·앰프 시뮬레이터 학습 보편화

베이스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직접 연결해 톤을 만드는 홈레코딩이 확산됐다. 손끝의 터치가 톤을 만든다는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래리 그레이엄

Larry Graham

이달의 인물

★ 1946년 8월 14일 출생 — '슬랩 베이스'를 발명한 사람

발명 — 드러머가 없어서

모든 위대한 혁신은 '결핍'에서 태어난다. 십 대의 래리 그레이엄은 어머니의 밴드에서 베이스를 연주했는데, 어느 날 밴드에 드러머가 사라졌다. 리듬의 빈자리를 메워야 했던 그는, 엄지로 굵은 줄을 **때리고(thump)** 손가락으로 가는 줄을 **팅기는(pluck)** 방법을 고안했다. 엄지의 타격은 킥드럼을, 손가락의 Ting김은 스네어를 흉내 냈다. 슬랩 베이스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폭발 — 펑크의 심장

1967년 슬라이 앤 더 패밀리 스톤에 합류한 그는, 이 타격음을 무기로 펑크(Funk)라는 장르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Thank You'의 그 통통 튀는 베이스는, 이전까지 조용히 배경에 머물던 베이스를 **무대의 주인공**으로 끌어올렸다.

유산 — 모두의 스승

부치 콜린스, 폴리(RHCP), 마커스 밀러, 빅터 우튼 — 오늘날 슬랩을 치는 모든 베이시스트가 그를 시조로 꼽는다. 2020년 롤링스톤은 그를 '역대 베이시스트 7위'로 선정했다. 그가 결핍 속에서 만든 한 가지 기법이, 대중음악의 저음을 영원히 바꿨다.

대표곡 Thank You (Sly & the Family Stone) · Hair (Graham Central Station) · One in a Million You

학생에게 "없는 것을 탓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새로 만들어라." 제약은 때로 가장 큰 창조의 씨앗이다.

◆ 한눈에 보는 래리 그레이엄

- 1946** 텍사스 보몬트 출생
- 1960s** 어머니 밴드에서 슬랩 기법 고안
- 1967** 슬라이 앤 더 패밀리 스톤 합류
- 1993** 로큰롤 명예의 전당 헌액
- 2020** 롤링스톤 '역대 베이시스트 7위'

"나는 드럼을 대신할
무언가가 필요했을 뿐이다."

— Larry Graham

이태윤

李泰潤

국내 · 베이스

'국민 베이시스트' · 부활·송골매·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 세션 약 2만 곡

한때 '국내 음반의 베이스 세션 절반을 그가 담당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태윤은 한국 대중음악의 저음을 책임져 온 인물이다. 김태원과 함께 밴드 '부활'을 만든 창단 멤버였고, 송골매와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을 거치며 대한민국 밴드 역사의 산증인이 되었다.

조용필·이승철·서태지·H.O.T·보아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넘나드는 수많은 명곡의 베이스 라인이 그의 손끝에서 나왔다. 화려하게 나서지 않지만 곡이 필요로 하는 **가장 정확한 저음**을 놓는 것 — 그것이 세션 연주자의 미덕임을 그는 평생 증명해 왔다. 현재는 대학 실용음악과에서 후배를 기르며, 자신의 노하우를 다음 세대에 전하고 있다.

대표 세션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 조용필 밴드 · 수많은 가요 명곡**학생에게** "돌보이려 하지 말고, 곡을 완성하라." 최고의 베이스는 나서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받친다.

자코 파스토리우스

Jaco Pastorius

해외 · 베이스

1951 - 1987 · 일렉트릭 베이스를 '독주 악기'로 끌어올린 천재

"나는 세계 최고의 베이시스트다." 스스로 이렇게 말했고, 많은 이들이 이를 인정한다. 자코 파스토리우스는 베이스를 '반주 악기'라는 자리에서 해방시켰다. 프렛을 제거한 **프렛리스 베이스**로 노래하듯 미끄러지는 선율을 연주하고, 하모닉스와 코드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베이스로 '멜로디를 노래하는' 길을 처음 열었다.

웨더 리포트에서의 'Teen Town', 솔로곡 'Donna Lee'는 베이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이정표였다. 짧고 격렬했던 삶 속에서도 그가 남긴 연주는, 지금도 모든 베이시스트에게 '한계는 악기가 아니라 상상력에 있다'고 말한다.

대표곡 Donna Lee · Teen Town (Weather Report) · Portrait of Tracy**감상 포인트** '반주'가 아니라 '노래하는 베이스' — 프렛리스 톤과 멜로디의 교과서.

BASS SPECIAL · 2026 AUGUST

베이스 BASS

보컬

드럼

기타

베이스

재즈피아노

미디

일반작곡

이론 — 루트와 '코드의 뿌리'

베이스의 첫 임무는 코드의 **루트(근음)**를 정확히 짚는 것이다. 화려한 라인을 만들기 전에, 코드가 바뀌는 순간 그 뿌리 음을 안정적으로 놓을 수 있어야 한다. 루트-5도-옥타브의 기본 이동만 탄탄해도 곡의 80%는 받쳐진다.

※ 멋진 라인은 '정확한 루트' 위에서만 빛난다.

연습법 — 드럼과 '한 몸' 되기

베이스는 킥드럼과 호흡이 맞아야 한다. 메트로놈 대신 **드럼 루프**에 맞춰, 킥이 올리는 순간에 루트를 정확히 겹쳐 놓는 연습을 하라. 베이스와 킥이 하나로 들릴 때, 비로소 '그루브'가 생긴다.

※ 베이스는 혼자 연습하는 악기가 아니다 — 늘 리듬과 함께.

입시 — 루트·리듬 안정성

베이스 실기는 슬랩 같은 화려한 기교보다 **'루트 정확도'와 '타임 안정성'**에서 점수가 갈린다. 지정곡의 코드 진행을 흔들림 없이 받치는 능력을 먼저 보여주고, 슬랩·필은 핵심 구간에만 절제해 배치하라.

※ 녹음해 드럼과 겹쳐 들으면 자신의 타임이 보인다.

톤 — 손끝이 만드는 저음

같은 베이스라도 **피킹 위치와 터치**가 톤을 결정한다. 넥 쪽은 둥글고 따뜻하게, 브리지 쪽은 단단하고 선명하게. 핑거·피크·슬랩의 세 주법을 곡에 맞게 골라 쓰는 감각을 길러라.

※ 톤은 장비가 아니라 오른손에서 시작된다.

이달의 추천 감상 — QR로 바로 듣기



Sly &
Family
Stone
Thank You
▶ YouTube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 YouTube



Jaco
Pastorius
Donna Lee
▶ YouTube



Marcus
Miller
Power
▶ YouTube

"좋은 베이스는 들리지 않는다. 다만 느껴진다."

— 이달의 한 줄



THIS MONTH MISSION — 베이스

드럼 루프(템포 80)에 맞춰 **루트 음**만 킥에 정확히 겹쳐 3분 → 좋아하는 곡 1곡의 **베이스 라인 4마디**를 귀로 카피 → 녹음해 원곡과 겹쳐 듣고 '타임이 맞는지' 한 줄 메모하기.